

# 전래노래놀이를 통해 배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 1. 전래노래놀이교육의 의의와 방향

세상의 사람들이 생김새도 성격도 똑 같다면, 과연 그 세상은 재미가 있을까?

세상살이가 다름이 공존하여 개성과 특성이 드러나고, 큰 틀에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살맛이 나는 법 아닌가. 문화예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유구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전통예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마다의 전통예술은 지역민을 하나로 엮어주는 정신적 보고이며, 정체성 형성의 지렛대이고, 더 나아가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훌륭한 문화상품으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와 “헤리 포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국을 상징하며 전승되어 온 문화에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한국예술(문학, 음악, 무용, 미술 연회 등), 한국의례, 명절과 세시풍속, 민속놀이, 민속예술과 민간신앙, 각종 문화유적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끊임 없는 창조적 계승과정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또한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개척하는 거울로서 우리 생활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 및 제반 사회발전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기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의 재외동포들이 삶의 현장을 가꾸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지키고 있다. 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2세·3세들의 조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며 한국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 중 상호 소통의 일차적인 매개체인 언어교육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언어는 단순히 글자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그 속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서가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전통과 문화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이를 통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바르게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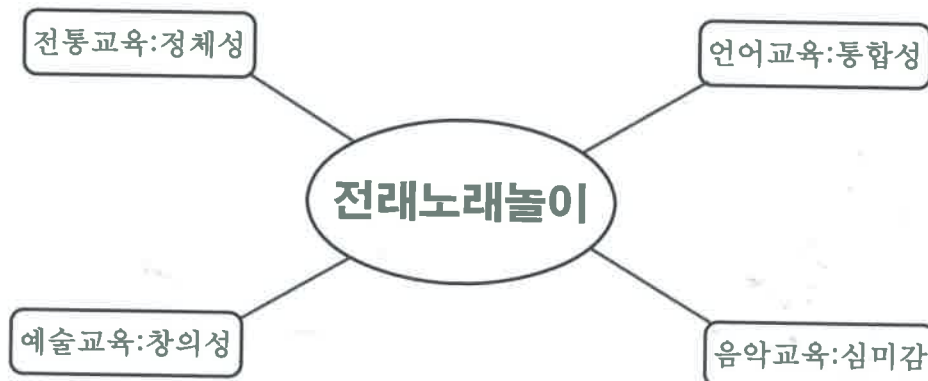
모든 민족에게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악언어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전 과정에 음악은 그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아이들은 “자장자장 우리 아기”로 시작되는 자장가와 함께 영아기를 시작하며, 아동기에는 전래동요를 성인이 되어서는 민요를 통해 공동의 일원으로서 자기 삶을 영위해 가고 “어허 어화 넘자 어이가리 넘자”로 시작되는 상여소리를 통해 삶을 하직하고 내세로 건너갔던 것이다. 이 음악 속에는 우리만의 공동체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고 우리만의 언어 구사법과 장단, 선율, 음악적 표현법이 또한 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음악을 통한 문화교육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서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교육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현대예술교육의 목표는 특정 장르의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있다. 그를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성”을 기르며 “자기주도적”인 인간형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악교육도 “정체성” 형성과 “언어교육”의 자료라는 효율성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은 지나간 과거 속에 묻힌 유물이 아니다. 전통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한국적 창의성 발현의 ‘샘’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국악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은 세계 속의 한국 건설이라는 목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2. 전래노래교육의 활동체계

1)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노래 듣기(무반주)</li> <li>- 교사의 노래 듣기(장단과 함께)</li> <li>- 음향기를 통해 관현악 반주가 있는 노래 듣기</li> </ul>
2) 노랫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 읽기</li> <li>- 노랫말의 의미와 배경 알기</li> </ul>
3) 노래 읊조리기 (말노래, ch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박자에 운율을 실어 읊조리기</li> <li>- 장단의 원리에 따라 읊조리기</li> <li>-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읊조리기</li> <li>- 리듬치며(전통악기, 서양리듬악기, 재활용악기, 몸악기-바디퍼쿠션 등) 읊조리기</li> </ul>
4) 선율에 얹어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율 유형에 따라 부르기</li> <li>- 장단(빠르기)을 변화시키며 부르기</li> <li>- (느리게 하여)시김새를 손으로 표현하며 부르기</li> </ul>
5)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을 동작으로 표현하기(손울동, 춤, 몸울동, 게임 등)</li> <li>- 노래와 함께 놀이하기</li> </ul>
6) 노래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및 가사 짓기</li> <li>- 리듬창작을 통해 바꿔 부르기</li> <li>- 가락짓기</li> </ul>
7) 통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조형, 문학, 음악극 등의 활동으로 확대하기(예: 별자리 만들기, 데칼코마뉴, 동네지도 만들기 등)</li> </ul>

### 3. 전래동요의 정체성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제1-2차 학교령을 발표하여 한국에서의 교육정책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병합(韓日併合)과 함께 설치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제1-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한식민지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식민지교육에서 음악교육의 특징은 '내선융화'(內鮮融和)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통한 '동화교육'(同化教育) 및 '황국신민화교육'(皇國臣民化教育)에 충실한 실천이었다. 그에 따라 음악교육은 '일본 천황폐하의 충량(忠良)한 국민으로서 심정을 순정케 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창가(唱歌, 쇼오카, しょうか)'가 중심을 이룬다. 통감부시기인 1910년에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발간의 『普通教育唱歌集』과 1914년 조선총독부 발간의 『新編唱歌集』을 시작으로 한 일제시대 제도권 음악교육은 우리 전통음악 창조적 계승을 가로막고, 일본이 서양음악을 수용하여 자국의 근대음악으로 일반화시킨 창가교육의 강제적 주입으로 나타난다.

창가는 내용적 측면에서 일본정신과 천황에의 충성을 명시하는 의식창가와 식민지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노래, 노동력과 생산독려에 대한 노래 등이며, 음향적 재료면에서는 대부분 요나누키(ヨナ抜き) 음계와 2박자류이며, 가사의 율격이 7·5조로 획일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내용은 3박자 중심의 우리 장단체계와 4·4조를 기본으로 한 율격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영향은 이후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요창작운동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 많은 창작동요에서 드러난다.('반달' · '고향의봄' · '설날' · '산토끼' · '우리나라꽃' · '오빠생각' · '고드름' · '달 따라 가자' 등)

또한 이시기는 일본이 일본식으로 차용한 많은 서양음악이 강제적으로 주입되는데, 나비야나비야(스페인민요, 「蝶蝶」, 쯔오쨌오), 앞으로앞으로(프랑스민요, 「進め進め」, 스스메스스메), 솔솔부는봄바람(독일민요, 「霞雲」, 카스미카 쿠모카, 안개인가 구름인가), 거미(위신통행진곡의 선율을 차용, 「やよ花」, 야요 하나자쿠라), 작은별(프랑스민요, 「うづまく水」, 우즈마쿠 미즈, 소용돌이 치는 물)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일본의 전래동요(와라베우타, わらべうた)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곡들이 현재에도 버젓이 우리의 전래동요로 차용되는 경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침바람」 · 「꼬마야꼬마야」 · 「여우야여우야」 · 「우리집에왜왔니」 · 「숫자노래-잘잘잘」 · 「똑똑똑누구십니까」 · 「두껍아두껍아」-가사는 전통적임 · 「짱깸뽕-묵찌빠, 가위바위보」 · 「셋셋셋」 · 「감자에씩이나서」 · 「숨박꼭질노래」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악교육에 있어 한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제재곡1》

자장가(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1. 자 장 자 장 우리 애 기 우리 애 기 잘 도 — 잔 다  
 2. 금 자 동 아 은 자 동 아 우리 아 기 잘 도 — 잔 다



꼬 꼬 닭 아 우 지 마 라 우리 애 기 잘 도 — 잔 다  
 검 등 개 야 짓 지 마 라 우리 애 기 잠 을 — 깰 라  
 굶 을 주 면 너 를 사 며 은 을 주 면 너 를 — 사 랴 아  
 나 라 애 는 중 신 농 아 부 모 애 는 효 자 — 동 아



자 장 자 장 우리 아 기 우리 아 기 잘 도 — 잔 다

한국 영아음악의 결정체는 ‘자장가’이다. 자장가는 한국인의 영원한 사랑의 노래이며 모든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모성의 그리움이 묻어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당연히 아이를 재울 때 들려줬던 노래이며, 아이를 등에 업거나 달랠 때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의 훈훈한 체온과 나지막한 음성 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인은 잠들었다. 자장가에는 아기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있고, 바른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는 염원이 깃들여 있기도 하다. 자장가는 한국인이 태어나 처음 듣게 되는 음악이기에 이 안에는 우리 음악의 핵심적인 요소가 응축되어 있다. 곧 한국음악의 정수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윤리가 담겨 있어 자장 가를 듣고 자라는 것만으로 이미 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자장가에는 검 등개와 닭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리어리’나 ‘구구’로 불려졌다. 이 ‘어리어 리, 구구’는 만주의 샤먼신가에서 개와 닭을 불러낼 때 부르는 말로서 한민족 고대의 신 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의 신화에는 저승에서 이승의 의식세계로 인도하는 개가 검등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자장가에 등장하는 개가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 니라 한국인들의 신앙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자장가는 인간과 신,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와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제재곡3》

등개등개등개야(자진모리)



등 개 등 개 등 개 야 - 두 등 등 개 등 - 개 야



엄 마 아 빠 효 자 등 이 형 제 간 에 우 애 등 이  
 오 이 크 듯 호 박 크 듯 건 강 하 게 잘 자 래 라  
 오 이 크 듯 가 지 크 듯 건 강 하 게 잘 자 래 라



등 개 등 개 등 개 야 - 두 등 등 개 등 - 개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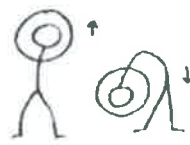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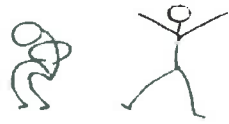


⇒ 후렴 빠르게(빠른자진모리)

⇒ 후렴 느리게(중모리)

우리나라 전국에서 불려졌던 ‘등개등개 등개야’는 아기의 겨드랑이에 손을 받치거나, 또는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한손으로 악기의 등을 꺾어 위로 흔들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방바닥에서 하지 않고 공중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공간지각 개념과 담력을 아기에게 길러줘서 결국은 평면에서의 몸가짐의 균형을 쉽게 유지토록 촉진하는 온 몸 운동이다. 잼잼, 짹짹과 같이 유아들에게 익숙하며 우리 음악의 주요 장단과 기초선율로 구성된 노래이다.

등	등	등	덕	콩	덕	더	등	등	덕	등	덕				
등	개	등	개	등	개	야 -	두	등	등	개	등	개	야		
엄	마	아	빠	효	자	등	이	형	제	간	에	우	애	등	이
오	이	크	듯	호	박	크	듯	건	강	하	게	잘	자	래	라
오	이	크	듯	가	지	크	듯	건	강	하	게	잘	자	래	라
등	개	등	개	등	개	야 -	두	등	등	개	등	개	야		

♣ 율동체조 동작

노래	동작설명	율동
동개 동개 동개야 두동 동개 동개야	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 발씩 교대로 중심을 옮긴다.	
엄마 아바 요자둥이 형제간에 우애둥이	양 손을 각지끼고 위로 뻗고 아래로 뻗는다.	
오이 크듯 오박크듯 건강하게 잘자래라	오금질 하며 양 팔을 벌렸다가 머리위에서 박수 두 번 친다.	
오이 크듯 가지 크듯 건강하게 잘자래라	온 몸을 오무렸다 쪽 편다.	
동개 동개 동개야 두동 동개 동개야	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 발씩 교대로 중심을 옮긴다.	
동개 동개 동개야 두동 동개 동개야 (빠르게*2)	양손을 뿜기면서 똥다.	
동개 동개 동개야 두동 동개 동개야 (느리게)	천천히 숨 쉰다.	



《제재곡4》

나무노래(자진모리, 휘모리)

가 자 가 자 감 나무 오 자 오 자 옷 나무  
 마 람 솔 솔 소 나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무  
 방 귀 뽕 뽕 나무 가 자 가 자 감 나무  
 오 자 오 자 옷 나무 마 람 솔 솔 소 나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무 방 귀 뽕 뽕 나무

♣ 연계활동 : 다른 나무, 식물, 동물, 곤충, 가족, 친구 등을 소재로 노랫말을 만들어본다.

♣ 예(나비) : 나-비 나-비 범-나비 / 배-추 밭-에 흰나비 / 장다리 밭에 노랑나비 / 팔-랑 팔-랑 잘-난다 / 살-랑 살-랑 춤-춘다

《제재곡5》

나물노래(자진모리)

꼬 불 꼬 불 고 사 리 이 산 지 산 님 나 물  
 밭 랑 밭 랑 밭 냉 이 잠 아 뜰 이 꽃 다 지  
 배 가 아 파 배 나무 따 끄 따 끄 가 시 나 물  
 마 귀 마 귀 씩 마 귀 배 끈 매 끈 기 록 나 물

《제재곡6》

맹꽁(단모리)

맹꽁 맹꽁 반대로 - 말하는 맹꽁

무기우나 맹꽁 가뽀다 맹꽁 가벼우나 맹꽁 무겁다 맹꽁  
 니 - 우나 맹꽁 좁다 - 맹꽁 주 - 우나 맹꽁 뽀다 - 맹꽁  
 높 - 으나 맹꽁 낮다 - 맹꽁 낮 - 으나 맹꽁 높다 - 맹꽁

맹꽁 맹꽁

♣ **연계활동** : ①본 가사 이외의 여러 단어를 연령대에 맞게 제시하여 반대말을 찾아 노래를 부른다. ‘반대로’ 대신에 ‘거꾸로’를 넣어서 언어활동을 한다. ②맹꽁이와 개구리, 두꺼비의 여러 차이점을 알아보고,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통해 환경교육으로 연계한다.

♣ **참고사이트(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울음소리 등 생태)**

<http://www.wonheungi.net/contents/flash/amp.swf>

<http://cafe.daum.net/bulkot>



《제재곡7》

두꺼비 집이 여물까(자진모리)

두꺼비 집 이 여물 까    까 치 집 이 여물 까    두꺼비 는 집 짓 고  
 황 새 는 물 길 고    까 치 가 밭 아 도 탄 탄    황 소 가 밭 아 도 탄 탄

♣ 놀이동작

가 사	동 작
두꺼비 집이 여물 까 까치집이 여물 까	주먹을 쥐고 옆으로 두 번 두드린 후 위아래로 두 번 두드린다. 두 번 반복
두꺼비는 집짓고 황새는 물 길고	한명(A)이 두 주먹을 옆으로 붙이고 있고 다른 한명(B)은 검지와 중지로 다른 사람의 주먹을 옆으로 네 번 두드린 후 위아래로 네 번 두드린다.
까치가 밭아도 탄탄	한명(A)은 두 주먹을 옆으로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명(B)은 검지와 중지를 세워 기다렸다 첫 번째 ‘탄’에서 다른 한명(A)의 두 주먹을 떨어뜨린다.
황소가 밭아도 탄탄	한명(A)은 두 주먹을 위 아래로 붙이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명(B)은 검지와 중지를 세워 기다렸다 첫 번째 ‘탄’에서 다른 한명(A)의 두 주먹을 떨어뜨린다.

♣ 벌칙노래 : 고추장 꼭꼭 꼬집고 / 된장 되게 누르고 / 간장 간장 잔질이자

《제재곡8》 개구리(중모리, 중중모리-긷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개 울 개 울 - 개 구 리    너 희 집 - 이 이 니    나  
 미 나 리 밭 이 내 침 이 다

《제재곡9》

멤멤(자진모리)

고 추 먹 고 멤 멤    마 늘 먹 고 멤 멤  
 날 래 먹 고 멤 멤    ? ? 먹 고 멤 멤

앞 산 — 도 땡 땡    뒷 산 — 도 땡 땡

땡 갈 땡 갈 돌 아 라    가 위 바 위 보

♣ 연계활동 : 다른 매운 양념 및 매운 음식들을 알아보고 노래에 가사 붙이기를 한다.

♣ 벌칙 : 뒷 목에 손가락 찍고 알아맞히기

♣ 멤 : 빙빙 돌다.

《제재곡10》

가마솥의 누룽지(벌칙놀이)

가 마 솥 의 누 룽 지    딱    딱    굼 어 서

오 드 푹 오 드 푹 씹 어 서    맛 있 게 먹 자 — —

《제재곡11》

춤대장

전래동요 / 백청우 작곡

♣ 손과 발이 푹푹 얼어붙는 겨울에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이다. 땅속에 묻혀 있는 무우나 향아리(독)는 춤지 않을 거라는 아이들의 상상이 재미있고, 무우와 향아리에 각각 ‘무침지’, ‘독도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재치 있는 언어표현이 더욱 재미있어 보인다.

♣ 침지 - 조선시대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아 보던 중추부에 소속된 벼슬 이름(침지사, 정3품)

노랫말	동작	도해
엇 추위라 춤대장	짹끼리 박수를 치고 떨어져서 추운 듯 손을 흔들고 짹을 안아준다.	
춤지않아 무침지	짹끼리 박수를 치고 떨어져서 추운 듯 손을 흔들고 양손을 번갈아 수염 모양을 만든다.	
이빨이 덜덜 떨린다	양손을 함께 오른쪽으로 세 번 짹고 박수를 친후 반대로도 한다.	
엇 추위라 춤대장	짹끼리 박수를 치고 떨어져서 추운 듯 손을 흔들고 짹을 안아준다.	
춤지않아 독도령	짹끼리 박수를 치고 떨어져서 추운 듯 손을 흔들고 손을 앞으로 둥글게 모아 향아리 모양을 만들고 흔든다.	
다리가 덜덜 떨린다	박수를 치며 개다리 춤을 춘다.	

• 속담 : 돈만 있으면 개도 멍침지 : 조선 후기 매관매직을 풍자한 속담



《제재곡12》

황소씨름 고등어씨름(자진모리)

덩	덩	덩	덕	콩	덕
황 소	씨 림	고 등 어	씨 림		
어 디 서	배 윳 나	질 에 서	배 윳 다		
뭐 먹 고	배 윳 나	밭 먹 고	배 윳 다		
누 구 한 테	배 윳 나	아 빠 한 테	배 윳 다		
어 똥 게	넘 기 나	이 령 게	넘 긴 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남자들은 개울가 모래밭에 모여 씨름대회를 열었다. 그날 씨름왕에 선발되면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기도 했다. 어른들이 하는 씨름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의 시름놀이를 만들어 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힘을 겨루는 놀이로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얘기를 노래로 부르며 씨름놀이를 한 것이다.

《제재곡13》

오금아 힘써라(휘모리, 단모리)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앞 산 아 멩 거 라 뒷 산 아 밀 어 라

오 금 아 힘 써 라 영 차 영 차

예전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나서면 앞에 높은 산이 펼쳐져 있었다. 초록의 나무가 무성한 산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의연한 맘을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산을 바라보며 부르던 노래인 ‘오금아 힘써라’는 그네타기노래이기도 하다. 또한 옛날에 오금이 튼튼해야 여러 일을 잘 할 수 있었으며, 동화에서 무서운 존재를 만나면 ‘오금이 절인다’ 라고도 했다.

♣ 놀이

\*전주 : 두 손을 마주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며 리듬을 탄다.

\*노래 : (앞산아 땡겨라 ~ 오금아 힘써라) 두 명이 짝을 짓고 마주서서 양손을 잡고, 작게 점점 크게 좌우로 흔든다.

(영~ ~차) 두 손을 잡은 채로 옆으로 한 바퀴 돈다.

(영 차) 두 손을 잡은 채로 반대로 빠르게 돈다.

\*간주 : ①마주보고 트위스트 동작(주고 받고 2번)을 한다. ②두 손을 맞잡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고(8발), 반대방향으로 돈다(8발)

\*노래 : 앞 노래 동작을 반복한다.

《제재곡14》

군밤타령(자진모리)

자진모리 우리나라 민요

<매기는소리>

바람이 분다 - 달도 밝다 -

바람이 불어 - 연평바다에 달도 밝아 - 우주강산에

<받는소리>

어허어얼싸 바람이 분다 일싸 좋네 - 아 좋네  
어허어얼싸 저달이 밝아 일싸 좋네 - 아 좋네

군밤이 요 - 에헤라 생틀 밤이로구나 -  
군밤이 요 - 에헤라 생틀 밤이로구나

♣ 다른 가사 : 너는 총각 나는 처녀 / 처녀 총각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개가 짖네 개가 짖어 / 눈치 없어도 어허어얼싸 함부로 짖네  
봄이 왔네 봄이 왔어 / 금수강산에 어허어얼싸 새봄이 왔네

♣ 연계활동 : ①전통춤사위를 활용하여 율동을 만들어 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 양손을 옆으로(혹은 앞으로) 뺀고 어깨춤 춘다.

-연평바다에 : 왼손은 왼쪽 옆구리에 대고, 오른손을 앞으로 내 밀어 밀고 당기고 얼러준다.

-어허어 얼싸 바람이 분다 : 왼손을 앞으로 내 밀어 오른손과 왼손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얼러준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 손뼉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원을 그려 한 바퀴씩 돌린다.

-생들밤이로구나 : 어깨춤

②노랫말을 바꾸어 본다.

➡민요 군밤타령 개사의 예

선생님 안녕 / 친구야 안녕 / 우리 모두다 / 어-어얼싸 신나게 놀자  
얼싸 좋네 아-좋네 / 한국학교 에헤라 / 멋진 날이로구나!